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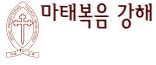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십자가 고난의 실체

(마 27:27-44)

The Substance of Cross' Suffering

(Matt. 27:27-44)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에 집중할 때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고, 선교에 대한 강렬한 자극과, 원수를 향한 새로운 사랑, 그리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When we concentrate on the cross on which Jesus died for us and the sufferings of the cross, we can worship God with our new mind, and we have the new encourage of strong stimulus of missionary, a new love toward our enemy, and all hardship to be overcome.

1.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희롱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흥포를 입혔습니다. 말이 흥포일 뿐 붉은 보자기 같은 것을 씌워준 것입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잡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꾸민 것입니다.

1. Jesus Christ who was mocked

They striped Jesus and put a scarlet robe on him. Here, the scarlet robe was not true but they covered him only with a cloth wrapper. They also twisted together a crown of thorns, set it on his head, and they put a staff in his right hand. Because they thought that Jesus insisted that he was the king of the Jews, and they disguised Jesus as the king.

이렇게 너저분하고 흉한 물골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라고 하며 비웃고 침을 뱉습니다. 지나가던 자들까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39-40절).

Like this, they made Jesus shabby and a rascal, and mocked him. They said, "Hail! King of the Jews" mocked and spat on him. Even those who passed shook their heads and hurled insults at him (vv. 39-40).

내가 받아야 할 능욕을, 내가 받아야 할 비난들을, 내가 받아야 할 희롱들을 대신 받으시며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의 그 어떤 고통의 시간보다 더 힘든 순간을 보내셨습니다.

For me, Jesus received the insult, blame, and mocking that we deserve. He had much more suffering time on the cross than any other suffering.

2. 예수님이 당하셨던 육체적 고통

주님은 온 몸이 벗겨져 기둥에 묶인 채 로마 군인들이 내리치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사람이 결코 감당 수 없을 만큼의 채찍을 맞으시고 50kg이나 되는 십자가를 지고 끌고다오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며 쓰러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2. The physical suffering that Jesus was given

By being bound on the pillar, Jesus was flogged by Roman soldiers. He was flogged by soldiers too great for Jesus to bear, and carried the cross of 50 kgs on his back, walked up the Golgotha. By walking up, He fell down, fell down, and fell down.

수치와 고통 가운데 중동지역 정오에 내리쬐는 살인적인 피약벌에서 무려 3시간이나 고통을 견디시다가 마침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으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후 운명 하셨습니다.

In the midst of disgrace and sufferings, under the blazing sun falling at noon in the middle East heat. He endured his suffering for three hours, and finally he cried out in a loud voice and gave up his spirit,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I have done all."

3. 십자가의 효력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시 85:10).

인애와 진리는 본질상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애와 진리가,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화평이 입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의와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3. The effect of the cross

"Love and faithfulness meet together; righteousness and peace kiss each other" (Psalms 85:10).

Naturally, love and faithfulness cannot meet together. Nevertheless, there are places to kiss each other love and faithfulness, and righteousness and peace. That is just the cross of Jesus Christ. God's love and righteousness accomplished together on the cross. God's righteousness and God's peace kissed together on the cross.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instead of us for our injustice and s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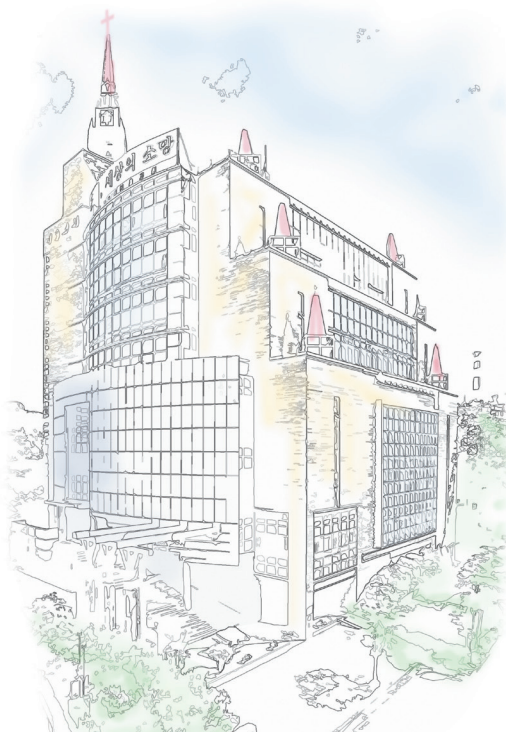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은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며, 축복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며 영원한 찬송과 감사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십자가로부터 흘러 나오는 은혜와 구원과 지혜와 능력과 승리를 마음껏 누리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The cross is the grace of redemption, which is the grace to harmonize God with us. The cross is a power to make us live a victory, and is God's salvation of us to enjoy his blessings and joys. The cross is all of the things for us and the titles of eternal hymns and thanks.

By meditating deeply the sufferings of Jesus Christ's cross and enjoying the grace, salvation, wisdom, power, and victory that flow from the cross as much as you like,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the faithful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제38학기 서울성경대학 ·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개강

9월 7일(월) ~ 11월 15일(주일) 10주간 열려

성경 66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통하여 말씀에 든든한 기반을 둔 신앙을 확립하고, 말씀이 왕성하여, 내적으로 복음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외적으로는 복음전파가 힘을 얻어, 서울교회 부흥을 위한 기틀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제 38학기

서울성경대학과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이 9월 7일(월) ~ 11월 15일(주일) (10주간) 다음과 같이 열린다.

각 과목당 소정의 수강료가 있으며 성도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성경과목 (10주)	레위기	목, 저녁 7:00~8:00	서명철 목사	602호
	역대기(구약의파노라마)	금, 오전 6:10~7:00	장석남 목사	603호
성경통독반	목, 오전 10:30~12:00	서준권 목사	501호	
선교대학	월, 저녁 7:00~8:30	장석남 목사	602호	
살롬 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 1:30	서명철 목사	101호	
교사 양성반	주일, 오후 3:30~4:20	교역자 전체	606호	
교구원공 양성반	주일, 오후 3:30~4:20	교역자 전체	607호	
전도학교(12주)	주일, 오후 3:10~4:30(9/6~11/22)	배경애 전도사	506호	

서울음악교실	주일, 오후 1:30~3:00	박정선 장로	601호
결혼예비학교(5주)	주일, 오후 3:30~4:30 (9/20~10/18)	서준권 목사	609호
수화교실 초급반(16주) 중급반(16주)	주일, 오후 1:00~1:50 (9/6~12/13)	임규현 목사	609호(초급) 603호(중급)
어머니 힐링스쿨	화, 오전 10:00~12:00	양세라 목사	601호
영성 케어부	화, 오후 1:30~3:30	양세라 목사	601호
영유아어머니 허트스쿨	목, 오전 10:30~12:30	구분혜 전도사	706호
베블리오 바이블 스쿨	토, 오전 10:00~12:00(9/5~11/7)	양세라 목사	702호

이웃과 함께하는 2015 사랑의 바자

농어촌100교회 농특산물, 다락방 통해 사전예약 중

2015 사랑의 바자(위원장 : 홍성주장로)는 교구별 출품 품목들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교구관련자들이 모인 가운데 추천을 통해 교구별 매장을 확정지었다. 또한, 우리교회가 돕고 있는 농어촌 100교회의 농특산물의 직거래장터도 마련키로 했다.

태양초 고추가루, 다양한 꿀, 감자, 단호박, 참기름, 해조물등이 출품될 예정이며 사전에 교구, 다락방을 통해 예약을 받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다락방으로 기부약정이 이어졌으며 펜션이용권, 샘플선물세트, 아로니아음료, 썬글라스, 그릇, 수출용 니트등 다양한 의류, 유아용 그림책, 핸드메이드가방, 바베큐불판, 다수의 중고핸드폰, 외국 동전등 기증품과 다수 무명 기부금등이 접수되었다.

사랑나눔 기부(약정)자 명단

(12교구) 유경희 (13교구) 이상욱, 장성자1, 박미영 (13-16) 차인화, 서영선, 김선화, 정호희, 위현주, 한소영, 김선규, 김경애, 이소희, 박경희, 최진이, 윤이경 (14교구) 최희희, 이영재 (16교구) 채형숙, 김경자, 조예진 (기타) 무명



서울음악교실에 초대 합니다

오늘 601호실에서 1시30분 개강

서울교회의 자랑인 서울음악교실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음악교실에서는 찬양을 잘 부를 수 있도록 발성의 기초와 음악이론 전반에 걸쳐서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짜여진 열린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서울음악교실에서는 발성법, 호흡법, 악보 읽는법(계명장법), 노래 부르기, 기초 음악이론, 유명합창단의 성가합창연주 감상 등 다양한 음악적 교육과 실습을 음악대학교수에게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님은 물론 이웃 주민들께도 적극 홍보하시어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시며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은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83)

(문 183) 사도 바울은 『민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고전7:10-16) 했으니 이는 이혼을 합법화한 말씀인가요?

(답) 고전7:10-16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결혼한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전도하여 믿게 할 것을 말씀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또는 아내)이 상대방에 의해 거룩하게 되며 그래야 자녀도 깨끗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갈라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vv.10-11) 고 하였습니다. 크리스천 남편이 불신자 아내를 버리지 말 것과 크리스천 아내가 불신자 남편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득이 별거를 하게 될 경우 크리스천이 먼저 제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사는 동안 불신자 남편(아내)도 성령의 영향아래 있게 되어 마침내 크리스천에 의해 거룩해 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받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벧전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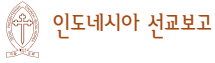
바울도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또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겠느냐고 하였습니다(고전7:16).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한집에 있게 되면 자녀에게 미치는 더러운 영향이 있으니 불신자가 갈리기를 원하면 갈라서서(고전7:15) 자녀로 하여금 깨끗케 하라고 했습니다. 유아세례를 받으므로 어린이가 중생을 체험한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므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자식이 된 것처럼(창17:12, 21:4) 자녀를 하나님 백성으로 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전 7장은 영적으로 분리된 가정이 서로 다투고 고통 중에서 함께 살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한 것입니다. 불신자의 핍박을 참고 견딘다 해도 더 나아질 보장이 없을 경우 자기희생만 강요될 뿐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면 별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간음함'이라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마5:32, 19:9)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 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사실 고전7장도 이혼을 허락한 말씀은 아닙니다.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한(신22:24, 레 20:10) 모세 율법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혼의 근거를 부정(간음)에 두고 음행한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지는 간음하는 것이라 가르치신 것입니다. 고전 7장에서는 깨끗한 아내(또는 남편)의 재혼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11절에서 갈라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별거에 대한 말씀은 주시지 않았지만(고전7:12) 바울은 여기서 두 사람이 화평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면 별거가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혼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별거로 이혼사유를 만드는 이도 있으나 그 때도 주님이 말씀한 대로 간음한 증거 없이는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혼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이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이혼의 사유로 삼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다음 주 계속)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의 아픈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어 가슴이 아픕니다. 동부 자바 중교 교회가 있는 중교 마을에는 병원이 없고 보건소를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하는데 하루 일당이 한화 1000원인 사람들이 보건소를 가려면 한 번에 한화 3000원을 써야하니 보건소를 가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기후가 좋지 않고 청결의식이 없고 병원도 믿을 수가 없어서 병도 많고 세상을 뜨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중교교회의 교인들의 소천 소식을 너무 자주 접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그 오지에 가서 환자를 치료하려고하는 의사 선생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슬람으로 30년을 살아온 이브 니닉이라는 친구는 꿈과 생시를 분간할 수 없는 상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시고 가셨는데 머리가 흠뻑 젖어 있었다고합니다. 그 후 2번을 더 예수님을 만나고 친구가 주는 성경책을 읽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가지면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재산도 빼앗기고 외톨이가 된 이 여인이 남편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오면 잘 살게 해 주겠다는 가족의 유혹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사역하

던 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신학대학들이 이혼한 사람은 교수가 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지쳐서 저희를 방문한 이 여인과 함께 기도하며 새로운 길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고등학교 교장이 될 수 있게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에는 이성일 선교사와 함께 교회와 어린이 학교를 봉사하고 싶어했습니다.

서광종 선교사는 금요일외에는 주6일을 신학대학과 교회에 아침과 저녁으로 나가서 학생들과 교회봉사를 하고 있어서 많이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걱정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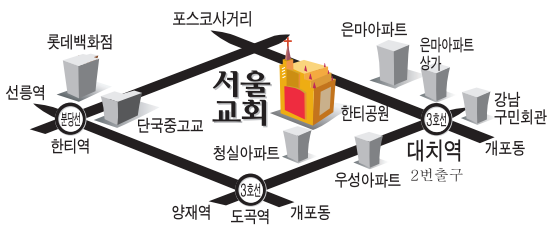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서광종 이성일 선교사의 새로운 사역에 충성과 복종과 겸손함이 있기를 위해서
 - 압디엘 교회 음악 신학대학원이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이는 도구가 되도록
 - 알파와 오메가 신학대학의 교회음악과와 기독교 교육과의 부흥을 위해서
 - 스타디온 교회와 뻘대아 람베르 교회의 부흥을 위해
 - 뻘대아 람베르 교회의 교회 증축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 지도록
 - 아동부 예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 서광종 선교사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본 당 II, III 층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VIP 초대! 사랑의 시작입니다." 2015 사명자대회 새생명 축제

기도 중에 준비하신 VIP(전도대상자)초대작정카드를 작성하여 오늘 주일에배 설교 후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특별 찬양 ■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시온찬양대(대장:이영기장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최유현 집사의 지휘로 "일어나라 (박지훈)", "Deep River 깊은 강(Norman Luboff 편곡)", "내 주를 가까이 (John Coates 편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Camp Kirkland 편곡)"을 찬양하며, 오르가니스트 김진형 선생, 피아니스트 박승기 집사, 팀파니스트 윤주일 집사가 함께 연주하고 중창은 신모란 집사, 박수련, 최중현, 이명호, 박석은 선생이 담당한다.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9월6일(주) 섬김의교회 주일예배설교를 한다. 9월8일(화) 줄기세포생명재단 생명음악회 예배설교를 한다. 9월9일(수) 한국로잔위 월례모임을 갖는다. 9월11일(금) 영락교회 남.여연합선(전)교회 특강을 한다. 9월12일(토)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역회 월례기도회 및 신학특강을 소집한다.
- 출장 : 이갑진 장로 (세계기독교인회 동아시아 담당 부회장) 9.10-12 동아시아 지역 기독교인 지도자 모임 주관, 일본 동경 출장
- 득녀 : 14교구 정성우 박지혜의 성도가짐
- 주일식당봉사 : 뽕뽕전도회(9.6) 빌립 선교회(9.13)
- 금주의 식사 제공 :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서울성경대학, 열린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적 재충전과 전도의 기회가 되도록
2. 사랑나눔운동에 동참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2015 사랑의 바자가 되도록
3. 5,000명의 VIP, 1000명의 방문자, 300명의 결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2015 사명자대회, 새생명축제가 되도록